

프로그램 진행개요

프로그램명	무등산국립공원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목표	무등산 깃대종 수달을 알 수 있다.		
해설주제	무등산 깃대종인 수달		
해설재료	수달	소요시간	10분

프로그램 진행순서

해설단계	해설단계	주요내용	준비물	소요시간
만남	무등산 국립공원 소개	무등산 국립공원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과 식물	사진	
주제해설	깃대종이란?	깃대종의 의미와 전국 국립공원별 깃대종		
	수달의 특징	무등산국립공원 깃대종 수달의 특징		
	수달과 해달의 비교	수달과 해달의 닮은 점과 다른 점		
	수달 찾기	수달의 흔적 찾기		
마무리	수달의 서식환경	물을 좋아하는 수달 수달의 서식환경과 수달보호를 위해 지켜야할 약속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무등산국립공원 소개	<p>안녕하세요. 무등산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 이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무등산국립공원입니다.</p> <p>국립공원은 자연을 보전하고 자연을 오랫동안 이용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곳을 말합니다. 국립공원에는 멸종위기 야생식물도 살고 있고, 천연기념물등 숫자가 많지 않아서 우리가 보호해야할 동, 식물들이 살고 있는데요.</p> <p>무등산국립공원에는 어떤 동물과 식물이 살고 있을까요?</p> <p>무등산에 살고 있는 대표적인 동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수달과 2급 삿대지 살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종으로는 수달, 담비, 삿대지, 하늘다람쥐, 흰목물떼새, 참매, 말뚝가리, 독수리, 구렁이 등이 살고 있습니다.</p> <p>또, 무등산에 살고 있는 대표적인 식물은 으름난초, 털조장나무, 역새군락, 진달래군락이 있습니다.</p>
국립공원의 깃대종	<p>어떠한 지역에는 여러 동물, 식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고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동물이나 식물을 ‘깃대종’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의 생태계를 회복하는 개척자라는 이미지를 깃발의 의미로 형상화하여 ‘깃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p> <p>우리나라의 전국 국립공원에도 깃대종이 있습니다. (국립공원 깃대종지도 보여주며.)</p> <p>먼저 가장먼저 국립공원이 된 지리산국립공원부터 살펴볼까요?</p> <p>지리산의 반달가슴곰과 히어리, 경주국립공원의 원앙과 소나무, 계룡산 국립공원 호반새와 깽깽이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거머리말과 팔색조, 설악산국립공원의 눈잣나무와 산양, 속리산국립공원의 망개나무와 하늘다람쥐, 내장산국립공원의 비단벌레와 진노랑상사화, 가야산국립공원에는 삼과 가야산은분취, 덕유산국립공원의 구상나무와 금강모치, 오대산국립공원의 노랑무늬붓꽃과 긴점박이올빼미, 주왕산의 등근잎평의비름과 솔부엉이, 태안해안국립공원의 매화마름과 표범장지뽕,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풍란과 상괭이, 북한산국립공원의 오색딱다구리와 산개나리, 치악산국립공원의 금강초롱꽃과 물두꺼비, 월악산국립공원의 솔나리와 산양, 소백산국립공원의 여우와 모데미풀, 변산반도의 무안종개와 변산바람꽃, 월출산국립공원의 끈끈이주걱과 남생이, 무등산국립공원의 털조장나무와 수달, 태백산국립공원의 열목어와 주목이 있습니다.</p> <p>전체가 특별하고 소중한 자연자원인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외한 국립공원별 2종씩 선정하고 있습니다.</p>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무등산국립공원의 깃대종-수달	<p>무등산국립공원의 깃대종은 털조장나무와 수달입니다.</p> <p>여러분, 좁은 수족관 안에서 헤엄치는 수달을 본 적이 있나요?</p> <p>수달은 강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동물이지만 지금은 천연기념물과 멸종 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수달은 족제비과 포유류입니다. 몸의 위쪽은 광택 나는 갈색이며 아래쪽은 옅은 갈색을 띵니다. 짧은 네발에 물갈퀴가 있어 헤엄을 잘 칩니다.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습니다.</p> <p>지금 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지금 수달을 만날 수 있을까요? 거의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달은 밤에 밥을 먹고 낮엔 물가에 있는 바위틈이나 갈대로 만든 집에서 쉬기 때문입니다. 조심성이 많아서 작은 소리에도 물속으로 숨기 때문에 낮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달처럼 밤에 활동하는 동물을 야행성동물이라고 하는데요. 밤에 먹이를 찾아 먹으려면 깜깜해서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밤에 빛이 없으면 잘 보지 못하는 것과 다르게 수달은 밤이나 낮이나 잘 보이고 냄새도 잘 맡고 소리도 잘 듣습니다. 그렇다면 수달은 무엇을 먹을까요? 개구리, 물고기, 곤충, 새, 새의 알, 뱀도 먹습니다.</p> <p>물속에서 먹이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입 주변으로 안테나 역할을 하는 수염이 나 있습니다.</p>
수달과 해달	<p>혹시 물 위에 누워 자신의 배에 조개를 올려 돌로 깨 먹는 동물 영상을 본적이 있나요? 이 동물이 수달일까요?(사진) 이 동물은 수달이 아닙니다. 수달과 많이 닮은 해달입니다. 수달은 주로 강가나 호수 가운 민물 인근에서 살지만, 해달은 바다근처에 있는 물속에 잠긴 바위에 삽니다.</p> <p>해달과 수달 둘 다 발에 물갈퀴가 있어서 수영을 잘합니다. 하지만 수영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해달은 배영을 하듯이 누워서 수영을 합니다. 또 물에 누워 잠을 자기도 하고, 먹이를 먹기도 하고, 배위에 아기 해달을 올려놓고 돌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달은 배는 아래로, 머리는 밖으로 내어놓고 네발로 수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해달을 볼 수 있을까요? 해달은 한국에서는 볼 수 없고 북태평양 연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해달 모피를 얻으려고 마구 잡아서 세계적인 멸종 위기 동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보호 덕분에 다행히도 해달의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p> <p>수달도 모피 때문에 위협하진 않을까요?</p> <p>무등산국립공원에 살고 있는 수달도 모피 때문에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옆나라 일본에서는 수달이 멸종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수달은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되었고 2013년에 멸종 위기 야생동식물 1급으로도 지정돼 보호받고 있습니다.</p>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수달의 흔적 찾기	우리가 수달 근처에 가면 도망가고 버릴 겁니다. 수달은 소리를 잘 듣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등산국립공원에 수달이 살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발자국! 입니다. 수달은 물갈퀴가 있기 때문에 물갈퀴가 있는 발자국을 보고 알 수 있겠습니다. 발자국 말고도 똥을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 똥을 싸면 흘러가 버려서 다른 수달들이 영역을 알 수 없으니까 수달은 돌 위에 똥을 싸서 영역을 확실히 표시합니다. 수달은 물고기를 주로 잡아먹기 때문에 수달 똥엔 물고기 가시들이 있고 냄새도 비릿합니다. 수달의 발자국이나 똥을 발견하면 수달을 직접 만나지 못해도 수달을 만난 듯이 기쁠 것 같습니다.
물을 좋아하는 수달	수달은 물을 무척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수달이 좋아하는 먹이는 대개 맑고 깨끗한 물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로 산골짜기 계곡이나 강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물속에 집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수달은 숨을 쉬어야 하기 때문에 물속에 오래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바위나 나무 뿌리 밑에 저절로 난 구멍에 보금자리를 마련합니다. 수달의 집에는 몇 개의 구멍이 있는데 바깥쪽으로 드나드는 구멍이 물가 쪽으로 나 있어서 물로 드나들기가 아주 편리합니다.
수달의 서식지 오염	요즘 수달은 걱정거리가 생겼는데요 하천이 오염되는 것이 걱정이라고 합니다. 하천이 오염되면서 수달의 집이 오염되고 먹이를 찾는 것이 힘들어 졌습니다. 여름에 하천이 오염돼서 물고기가 폐죽음을 당했다는 뉴스 (사진) 보셨나요? 우리도 이런 뉴스를 보면 안타까웠는데 수달도 이게 걱정거리라고 합니다. 하천이 오염이 되면 수달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사라지겠죠? 무등산국립공원처럼 수달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천을 지키는 방법들을 다 같이 고민해 볼까요? -강가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세수할 때, 양지할 때는 물을 받아서 사용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무등산국립공원의 깃대종인 수달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수달이 살아가는 하천을 지키는 방법들을 다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고민했던 것 들을 실천하여 수달의 발자국이나 똥을 발견하면 수달이 살 수 있는 자연환경이 남아 있다는 사실에 기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해설사 이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4쪽/4쪽	
-------	--